

防衛産業과 우리의 姿勢

防 振 會 柳 俊 馨
常 勤 副 會 長

우리나라 防衛産業은 70年代 初부터 발전을 거듭하여 괄목할 만한 成長을 이룩하여 國際的으로 評價를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오늘날 우리經濟는 安定的 基盤위에 經濟的好況을 誘因한 「3低現象」과 政府의 적극적인 産業體質改善支援이 이루어지고 國際的 經濟潮流에 따라 加增되어온 保護貿易主義의 압력을 극복하려는 業界의 끈질긴 自主의 努力으로 安定的 企業基盤을 굳게 다져놓았습니다.

그러나 現在의 景氣展望으로 미루어 볼때 內外的으로 많은 變數要因의 作用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現實的 可能性을 감안하여 앞으로 如何한 환경여건의 변동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能動的으로 수용할 수 있는 대응책을 講究해야 한다는 것을 再認識하여야만 되겠습니다.

따라서 今年에도 우리業界는 지속적인 戰力增強事業完遂에 力點을 두고 高度精密裝備의 연구개발과 장비부품의 國產化促進을 기하고 우리與件에 맞는 獨自의 武器體系에 대한 연구개발사업에 박차를 加함으로써 北傀보다 絕對優位の 國防力培養에 이바지하는 동시에 防產基盤擴充에 力點을 두고 關聯國家를 대상으로 防產協力關係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4월에 開催한 '87韓·美防產會議와 展示會를 基點으로 兩國의 防產業體가 相互共同利益을 追求하기 위해 새로운 次元에서 協力關係를 돈독히 하고 발전시키는데 우리 防產業體는 注力해야 할 時期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重且大한 때에 극히 一部分이라 하겠지만 業體에서는 이를 소홀히 생각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國家安保와 自主國防의 早期實現을 위하여 最優先으로

해야 하는 國家的 産業이라는 사명감을 생각지 않고 經營不振의 요인이 防産業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業體가 간혹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나라의 防衛産業이 비록 美國의 對韓政策變化와 北傀의 지속적인 軍備擴張에 따르는 戰爭威脅增大에 대처하기 위하여 政府는 防衛産業育成支援에 관한 特措法을 制定하여

1. 稅制面에서 所得稅 및 法人稅 減面
2. 原資材의 關稅減免 및 零稅率適用
3. 國基金, 外資貸付 등 特惠 및 先給金支給
4. 優秀技術人力確保를 위한 兵役特例措置

등 政府의 各種育成支援施策에 호응하여 우리企業들은 防衛産業建設에 殊선하고 나섰으며, 大企業家は 그 나름대로, 中小商人, 勞動者, 農民들은 分수에 맞추어 防衛誠金을 냈으며, 全國의 어린이는 고사리 같은 손으로 貯金筒을 내놓았습니다. 이와 같이 國民總和로 우리의 防衛産業은 성장하여 왔습니다.

國民總和로 이제 우리의 防衛産業도 基本裝備의 量產體制를 완비하여 戰力化되었으며 國產裝備를 量產하게 되었습니다. 81年度에는 우리의 技術로 제작한 制空號가 창공을 수놓았으며 우리의 高度精密裝備生產의 基盤構築은 先進國을 따라잡고 있습니다. 모든 事業은 意慾과 現實面에서의 차이는 自他가 認識하고 있는 사실이나, 尖端産業技術이 우리經濟에 정착,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企業經營과 利益追求만을 論議하기에 앞서 防衛産業發展에 헌신적인 연구노력과 人內로서 産業의 當面問題解決과 基盤構築을 위하여 企業人은 國家에 대한 사명감과 긍지를 갖고 國家安保에 全力해야만 되겠습니다.